

# 국화축제부터 농기계박람회까지 대형 행사 잇따라

##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

익산시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익산시는 이달 제20회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2023 익산 농기계박람회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익산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열흘 대장정의 반환점을 돌았다. 화려한 야간 개막식으로 축제 시작을 알린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24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하루 방문객은 11만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제별 판매관의 매출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일부 매장은 오후 들어 준비한 물품이 완판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체험관 열기도 뜨겁다. 열흘 간 진행할 수량이 불과 3일 만에 모두 소진돼 새로운 체험 거리를 준비하는 등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올해 축제는 20주년을 맞아 특별히 더 아름다운 국화 전시와 여느 때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매일 밤 10시 축제장을 채우는 공연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스텝 프루어, 인생 사진 즉석 인화 이벤트, 익산 지역 음식점·숙박업소 이용자 대상 국화다발 증정 이벤트, 하기진 배를 채울 맛깔난 음식까지 그야말로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관람객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축제장을 찾아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있다.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관심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익산시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축제 소개 영상은 등록 시술 만에 조회수 1만5,000회를 훌쩍 넘겼다.

익산시 마스코트 마룡이가 축제장을 누비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과 조형 경관과 어울리는 야간 축제장의 모습도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청초함을 뽐내는 국화 전시는 오는 29일 축제가 막을 내린 뒤에도 미륵사지와 익산역 등 지역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화축제장 인근 다른 행사장에도 외지 손님들이 몰려든다.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매년 열리는 이 박람회가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박람회 개최 장소는 행사 취지에 맞게 웨스턴라이프호텔 옆에 위치한 옛 보일론 공장 부지에 마련됐다. 돛 형태의 대형 텐트

천만송이 국화축제 지난 22일 하루 방문객 11만명... 역대 최고 기록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지방 중소도시 첫 유치

31일 개최 농기계박람회 농업인들 '관심 집중'

안에 국내의 도시재생을 소개하는 500여개 부스가 차려진다. 참여 기업은 70여 곳이다. 박람회에는 도시재생 분야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들과 전문가, 기업 임직원 등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도시혁신의 기술과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자리다. 참가자들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친밀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인적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

이들은 분야별로 개최되는 학술 세미나 외에도 익산의 도시재생 뉴딜 거점 시설 1호인 청년시청을 시작으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글로벌문화관 등 익산지역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차례로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은 2023 익산 농기계박람회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다. 국내외의 200여개 회사가 참여해 과수나 축산 발 경작 등과 관련한 최첨단 농업 기계들을 소개한다.

특히 익산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농기계박람회는 올해 자율주행 농기계를 선보이는 등 농기계와 접목한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에 초점을 뒀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마트 원예 세미나와 농기계 전시장 푸짐한 경품 행사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됐다. 시는 최근 국내 유행이 시작된 소 렙피스진병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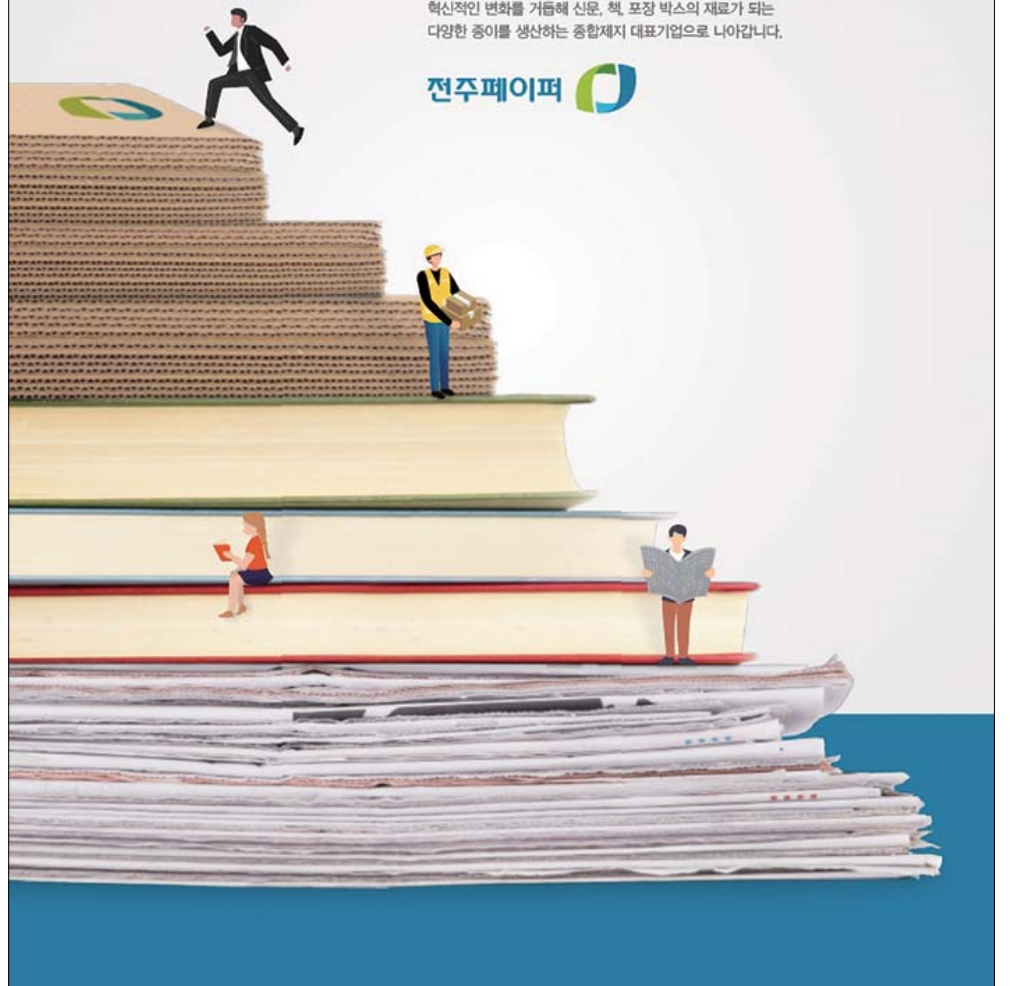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기간 국화축제가 함께 열리게 돼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익산을 찾고 있다"며 "오랜만에 열리는 농기계박람회까지 손님들과 우리 시민들 모두 불편함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질서 유지 등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축! 전주매일 창간

## 전주페이퍼가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55년동안 신문출판용지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전주페이퍼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신문, 책, 포장 박스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종이를 생산하는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나아갑니다.



## 천만송이 국화축제 ↓

